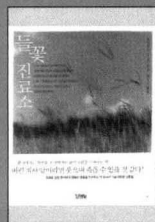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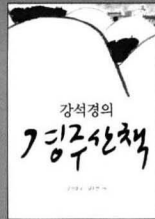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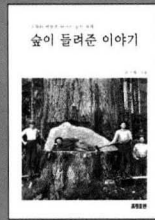


이달의
책.

후보.
도서.



《주시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신장섭·장하준 지음 | 장진호 옮김 | 창비 | 264쪽 | 값 13,000원
IMF와환위극복과정의 구조조정방식이 잘못됐음을 전제, 새롭고 창조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이른바 추격시스템의 장점을 살리고,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 강화, 기업그룹화 활용, 소액주주권 강화 등을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미국은 행진으로부터 시작된다》 김한균 지음 | 들리아침 | 340쪽 | 값 12,000원
제국주의나 파시즘은 '행진'을 즐겨한다. 다큐멘터리 PD인 저자는 이처럼 보편을 짓밟는 반지구적 권력의 조작된 상징과 특성을 들춰낸다. 3부에 걸쳐 부시의 침략전쟁과 제국주의, 국가주의, 광우항쟁과 양심수, 전쟁포로, 시대와 함께 하는 PD로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 남자네 집》 박완서 지음 | 현대문학 | 310쪽 | 값 9,000원
칠순의 작가 박완서의 첫사랑 고백록이다. 50년 전 첫사랑의 기억이었던 '그 남자'에 관한 짜릿한 감성과 6·25전쟁 와중에서 가족생계를 꾸리느라 감내했던 젊은날의 각박한 현실이 교차하며 독특한 감동을 전해준다. 《아주 오래된 농담》 이후 4년 만에 내놓는 오래된 사랑과 인생 이야기다.

《최순덕 성령총만기》 이기호 지음 | 문화과지성사 | 334쪽 | 값 10,000원
8편의 단편을 한데 묶은 소설집. 교양이나 명리 따워낸 거리가 먼 우리 사회 주변부 군상을 통한 '뻔뻔한 세상보기'다. 보도방 문화를 그린 〈버니〉의 고아소년, 지하철 앵벌이 이야기, 생활에 찌든 무능한 가장, 무지랭이 청년, 순박한 농촌 아낙 등이 주인공들이다.

《강석경의 경주산책》 강석경 지음 | 김호연 그림 | 열림원 | 136쪽 | 값 9,000원
'경주'에 이런 모미가 있었나 감탄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20군데를 산책하며, '산자와 죽은 자,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가 어우러진 경주'를 보여준다. 유려한 필치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잔잔한 감동이 있는 풍경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들꽃진료소》 도쿠나가 스스무 지음 | 한은미 옮김 | 김영사 | 356쪽 | 값 9,900원
일본에서 존경받는 의사인 지은이가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해 개설한 '들꽃진료소'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민적인, 친구 같은 선생님결에 있으면 엄숙한 죽음도 행복으로 바뀐다"는 환자들의 술회. 진정한 인술과 인간애를 베푸는 의사와, 아름답고 행복하게 죽어갈 권리에 대한 고백과도 같은 책이다.

《일상의 황홀》 구본형 지음 | 율유문화사 | 272쪽 | 값 12,000원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멋있는 예술이 있을까. 지은이는 그런 반문과 함께 하루를 기록하며, 그 하루 속의 생각과 행동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묻고 있다. 책은 그렇게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나는 '황홀한' 일상의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기경영임을 단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사를 바꾼 핵심 논쟁 50 말-말 말》 권오문 지음 | 삼진기획 | 436쪽 | 값 15,000원
분단과 통일, 한국 문화계를 달군 논쟁들, 논쟁중인 핫이슈 등 해방 후 현대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주제별 논쟁을 시대순으로 서술한 책이다. 생산적인 논쟁은 진보의 밑거름이란 믿음도 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이슈도 다루고 있는 책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다.

《벌들의 들판》 공지영 지음 | 창비 | 264쪽 | 값 9,000원
베를린에 거주하며 완성한 연작소설. 가정 폭력의 상처에 겨워하는 여인에서부터 5월 광주로 상징되는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 슬픔과 용서의 기억들이 펼쳐진다.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속도감 있는 문체가 어우러진 여섯 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숲이 들려준 이야기》 김기원 지음 | 호형출판 | 280쪽 | 값 14,000원
숲을 통해 본 문명론에 다름 아니다. '숲은 모든 것의 시작'임을 단언하는 저자는 의식주와 경제와 지혜와 철학과 문화와 음악과 신화가 모두 숲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숲으로 간 음악가와 작가, 신과 성인들의 숲, 역사 속의 숲을 두루 섭렵하며, 숲과 나무와 인류의 기나긴 인연을 실증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스티븐 킨 지음 | 박성관 옮김 | 휴머니스트 | 766쪽 | 값 30,000원
1880년부터 1차대전 끝날 때까지의 생활과 정신의 변화를 서술한 독특한 서물이다. 마르셀 푸르스트,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피카소 등의 대중문화와 전통 가치의 혁명을 조명했다.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시기 문화와 회화, 건축, 철학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해박한 분석을 가하고 있는 읽을 만한 책이다.

《재미의 경계》 이현비 지음 | 지성사 | 352쪽 | 값 13,000원
책은 문화산업과 인생의 중심에 '재미'가 있음을 전제, '재미'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과연 '재미있다'는 게 뭐냐. 지은이는 재미의 구조, 웃음과 재미의 차이, 웃음의 통합모형 등 재미의 3요소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 한편, '재미'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